

“나눔과 봉사로 국제협력...광주정신, 세계에 전파”

사단법인 광주공동체, 필리핀 해외봉사 진행

학교 시설 개선·의료 지원 등 민간 교류 확대

사단법인 광주공동체(상임고문 문상필)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광주정신을 알리기 위해 5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보홀섬 바클라온지역에서 제12차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공동체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해외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과 후원자들이 함께 참여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해외 현장에서 실천하는 뜻 깊은 자리다.

봉사단은 현지 센터를 초청해의 전장 개·보수 공사를 비롯해, 산타크루즈 마을

과 랜디칸 마을 주민들에게 염소 2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PC(컴퓨터) 지원과 의료용 소독약·마스크·수술복 등 위생용품, 구충제와 파스 등 생활의약품, 체육용품 등을 전달하며 교육·보건·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활동을 진행한다.

광주공동체는 2015년 캄보디아 캄pong 스리 지역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저개발국가에서 학교 시설 개선과 의료·교육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봉사를 넘어 현지 주민들과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어가며,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넓혀왔다.

문상필 상임고문은 “필리핀은 지금 제25호 태풍 갈매기가 통과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현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보홀섬 봉사활동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소통의 과정으로 광주정신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성 해외봉사단장은 “마을 아이들이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염소 사육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더 많은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공동체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광주정신을 알리기 위해 5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보홀섬 바클라온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김갑용 광주대 부총장, 호심학원 발전기금 2억 쾌척

1987년부터 후학 양성에 매진...학교법인 감사패 전달

광주대학교 김갑용 부총장이 4일 오전 학교법인 호심학원 및 광주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2억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김 부총장은 교육환경 개선, 지역사회 협력 강화, 학생 중심의 대학 혁신정책 추진 등 대학 경쟁력 제고에 힘써 온 가운데, 광주대가 100년 명문사학으로 발돋움 하길 응원하며 이번 기탁을 결정했다. 발전기금은 장학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사용될 계획이다.

김 부총장은 “청춘을 바쳐 광주대에서 보낸 시간이 제 삶의 큰 자부심이자 감사한 인연이었다.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길 바라며 기쁘고 보람된 마음으로 기탁을 결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숙남 이사장은 “호심학원과 광주대의 무궁한 성장과 인재 양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통 큰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참교육자로서 후학들에게 보내는 고귀한 뜻을 잊지 않고 대학의 변화와 성장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진 총장도 “이번 기부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력만리 키르기스스탄에서 광주대와 한국어, 한국문화를 알리는 왕성한 행보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광주대를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성장시켜 김 부총장님의 지지와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법인 호심학원과 광주대는 김 부총장의 명예로운 업적과 이번 기부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이날 감사패를 수여하고, 후학을 위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2억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한 김갑용 부총장(왼쪽)이 학교법인 호심학원 송숙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세대 알카라인 수전해 전극 개발...그린수소 상용화 ‘성큼’

켄텍 김창희 교수 연구팀 성과...재생에너지 연계 적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연구진이 그린수소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극 기술을 선보였다.

5일 켄텍에 따르면 김창희 에너지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대면적 제작이 가능한 공정’을 통한 이황화몰리브덴 기반의 고성능 알칼라인 수전해 수소발생전극을 개발, 실제 재생에너지 환경을 모사한 평가

로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황화몰리브덴은 구조와 전자적 특성을 조절해 수소발생반응에서 높은 촉매 활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비귀금속계 전극 소재다. 특히 본질적으로 낮은 촉매활성도를 가지는 2H 구조를 1T 구조로 전환하면 촉매활성도가 크게 향상돼 실용적 전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활발히 연구돼 왔다.



김창희 교수

김원식 박사

하지만 기존 연구는 나노 수준의 정밀한 구조 제어와 대면적화 공정의 한계로 인해 산업적 응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조 제어만으로는 충분한 촉매활성을 확보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면적화가 가능한 ‘공동 스퍼터링’ 기술을 도입했다.

아울러 전극이 실제 재생에너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동·정지 반복 평가를 수행해 안정적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함을 확인. 차세대 수전해 시스템에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증명했다.

김창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면적화가 가능한 공정으로 고성능 이황화몰리브덴 전극을 구현해 산업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며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에도 안정성이 입증돼 그린수소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햇빛·바람의 약속’ 미래 꿈나무 키운다

신안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인재 육성 3억 기탁 약정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회장 김경대)는 지난 3일 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 김대인)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3억원 기탁을 약정하고, 이 중 1억원을 1차로 전달했다.

지난 2023년 출범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는 햇빛아동수당을 3년째 지급하며 누적 72억원을 지원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올해 10월 바람연금 지급을 추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주된 공유 모델을 선도하며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은 “연합회가 실천하는 공정한 에너지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한다”며 “선한 영향력을 지속해 달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경대 회장은 “햇빛아동수당처럼 이번 장학기금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



신안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

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는 아동복지와 교육 지원을 연계한 ‘햇빛·바람의 약속’으로 신안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고용노동청,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 감독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지역 내 1억원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추락사고가 빈발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광주 서구 양동과 광산구 운남동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추락 위험이 있는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일부 현장에서 내측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이 적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추락사고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결혼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신희진(논산 참약사다운약국) 군. 박승호(아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씨(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 차녀 박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 양=11월 16일 일요일 낮 12시30분, 드메르 웨딩을 신관 자택을 1층(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운세 (음력 9월 17일)

48년생 반기는 이가 없으니 슬프다
60년생 우환이 예상되므로 외출 삼가하자
72년생 균형 감각이 상실하다
84년생 금전관계 양보하고 다투지 말라
96년생 허영 사치 금물

51년생 투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63년생 침착하게 진행해야 결실을 보게 된다
75년생 출세나 승진수가 보인다
87년생 피해 입을 수 있으니 동업체의 거절
99년생 충격을 받기 쉬운 차를 조심하라

54년생 너무 사람을 믿지 마라
66년생 거래도 어려운데 이익이 남겠는가
78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90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상책

57년생 뒷일은 생각 말고 마음 먹은대로 해라
69년생 남매 당하지 않으려면 언쟁 삼가하자
81년생 객관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93년생 이성 교제 모두 완만하지 못할 운세

49년생 뒷방의 장소에서 반가운 사람 만난다
61년생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자
73년생 호전되며 만사형통하니 행운의 날
85년생 과감히 밀쳐야 추진력이 생긴다
97년생 처음이 좋아야 끝도 좋다

52년생 피로가 쌓이기 쉬우니 유익
64년생 마음이 갈팡질팡하니 일이 느리다
76년생 새로운 일에 손을대면 이익이 많을 것
88년생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55년생 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67년생 어려운 경험의 밑천이 될 것
79년생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날
91년생 예산이 파산이다

58년생 원거리에 여행은 금물
70년생 기쁜을 이뤄가는 면모이다
82년생 지금의 매매는 이뤄지기 어렵겠다
94년생 천 비이트, 만 비이트 참을 것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함 요청된다
62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보살피자
74년생 노력하지 않아도 사업이 번창하겠다
86년생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다
98년생 정직하게 대하니 만민에 인정받는 날



53년생 다시 찾고 막혔던 길이 트이게 된다
65년생 희망이 생기고 활력을 찾게 된다
77년생 순서를 무시하면 혼란에 빠진다
89년생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운세



56년생 역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68년생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말라
80년생 헛소문 믿고 얘기하다간 욕 먹는다
92년생 자력시험 준비하는 것을 추천



59년생 본래 의도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
71년생 집에 있는게 좋겠다
83년생 겸손하다면 더 존귀한 위치에 놓인다
95년생 부모님의 동의를 얻을 운세